

어려움이 우리를 단단하게 합니다

남종성 교수 (M.Div 디렉터)

코로나 19 로 인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 캠퍼스에서 이루어졌던 수업이 다 온라인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는 수업을 할 수 없게 되어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는지, 특히 유학생 여러분들은 정부의 보조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는지, 공부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많은 궁금함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를 함께 잘 극복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강한 믿음으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가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코로나 19 로 한편으로는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전의 시간을 주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을 단단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까지나 목회자나 교회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탈피해서 환란의 때에 혼자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신앙훈련을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게으르지 않고 스스로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재난이 끝난다 하더라도 의존적인 신앙보다는 각자가 단단한 영적인 음식도 먹고 강한 영적 군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속과 육신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적인 심지를 굳게 드리우고 흔들림없이 굳건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기간동안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영적인 거리두기' (Spiritual Distancing) 훈련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인 거리두기'란 각기 떨어져 '외로움'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홀로 있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영적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지요.

학우들 모두가 어려움의 시기에 '십자가'하나만 붙잡고 영적인 '홀로서기'를 훈련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단단한 신앙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만나는 그 날 더 성숙된 모습으로 기쁨 가운데 만나기를 기도합니다.